

「내훈」과 「어제내훈」의 어휘 연구*

이 성 연

(조선대학교)

Lee, Sung-Yun. 1999. A Study on the Vocabulary of 「Naehun」 and 「øje Naehun」. *Linguistics* 8-2, 135-15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Naehun」, a bibliography of medieval Korean language and 「øjeNaehun」, that of modern Korean language. The following methods for the study were used : a distribution study for analysis of the vocabulary system and a relation study for the comparison of different meanings of vocabulary. The system of vocabulary is studied de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words, their different parts of speech and their different systems. The meaning for vocabulary is reviewed depending on their similar meanings and different meanings and opposite meanings. The change in vocabulary is studied through analyzing synchronized relationship of words to be compared. (Chosun University)

1. 서론

「내훈(內訓)」은 소혜왕후 한씨가 부녀자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중국의 역대 교화서인 「소학」, 「열녀」, 「여교」, 「명감」에서 가려 뽑아서 편찬한 책인데 1475년(성종 6년)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전하지 않고 이본들¹⁾이 남

* 이 논문은 199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심사에 참여하신 Reviewer의 도움 말씀에 감사드린다.

1. 「내훈」의 판본은 여러 가지이며 이본은 ① 성종 6년판(1475, 전하지 않음) ② 선조 6년판(봉좌문고본, 1573년) ③ 광해군 2년판(규장각본, 1611년) ④ 효종 7년판(1656년, 소재 불명) ⑤ 영조12년판 「어제내훈」(규장각본, 1736년) ⑥ 기타 목판본(간년 미상).

아 있다.

「어제내훈(御製內訓)」은 1736년(영조 12년)에 간행되었는데 당시의 현실 언어가 반영되어 번역문의 표기법, 음운 현상, 문법 등이 달라져서 근대국어 시기의 새로운 문헌으로 취급된다.

본고는 중세국어 문헌 자료인 「내훈」(봉좌문고본)²⁾과 근대국어 문헌 자료인 「어제내훈」(규장각본)의 어휘³⁾ 비교를 통해 중요한 차이점과 특징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방법은 분포 연구로서 ‘어휘의 체계’ 그리고 관계 연구로서 ‘어휘의 의미’와 ‘어휘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되겠다.

일차적으로 「내훈」과 「어제내훈」 각 1권의 어휘를 비교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⁴⁾ 그리고 대상 어휘 중에서 첫째, 음운 변화나 표기법 변화에 의한 것⁵⁾, 둘째, 구를 단어로 혹은 단어를 구로 교체한 것⁶⁾, 셋째, 단어와 단어가 일 대 일로 교체되지 않은 것⁷⁾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2. 어휘의 체계

두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어휘의 체계는 어종과 품사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어종별 분류와 품사별 분류는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일사본, 가람본) 등이 있다.

2) 봉좌문고본 「내훈」(1573년)은 초간본(1475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안병희 1972).

3) 본고에서 ‘어휘’는 단어의 집합 개념이 아닌 ‘어휘소(단어)’의 의미로 사용함.

4) 봉좌문고본 「내훈」은 3권 4책, 규장각본 「어제내훈」은 3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5) ‘물윗→물웃, 밍숨→밍움, 똥다→쫘다, 므스→무슨, 뭇머느리→뭇머느리’ 등의 경우.

6) ‘외다 호논 므수믄로(1:31b)→최맘호논 밍음으로(1:28b), 有餘(1:38b)→남은 것(1:35a), 모다→한가지로’ 등의 경우.

7) ‘노릇→회통’처럼 고, 가장 굿바나(1:43b)→ ___ 굿바나(1:39b), 근문훈 도적허거든(1:78a)→ ___ 도적질허거든(1:69a)처럼 자리비움 교체를 하거나 반대로 ‘ ___ 그 비곱프실가(1:43b)→ 오직 그 비곱프실가(1:39b), 그 사회와 ___ 머느리의(1:72b)→ 그 사회와 다못 머느리의(1:65b)’처럼 자리채움 교체를 한 경우.

「내훈」의 어휘가 「어제내훈」에서 교체될 때 4가지 유형의 어종별 양상을 보인다. ‘첫째, 고유어에서 고유어로 바뀜. 둘째,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바뀜. 셋째, 고유어에 한자어로 바뀜. 넷째, 한어에서 한자어로 바뀜’등인 것이다.

비교 대상의 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로 나뉜다. 수사와 감탄사의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두 어휘의 품사가 다른 경우⁸⁾는 「어제내훈」의 품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시되는 어휘 목록에서 화살표 왼쪽은 「내훈」의 어휘이고, 화살표 오른쪽은 「어제내훈」의 어휘이다.

그리고 옆의 도표에서 화살표 왼쪽의 처음 문헌⁹⁾은 해당 어휘가 「내훈」보다 앞서 맨처음 나타나는 다른 자료인데, 없을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겼다. 두 번째 문헌은 해당 어휘가 맨나중에 나타나는 다른 자료인데, 없을 경우 역시 빈 칸으로 남겼다. 화살표 오른쪽 도표의 자료는 해당 어휘가 맨처음 나타나는 다른 문헌인데, 「어제내훈」이 처음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겼다.

2.1. 고유어에서 고유어로의 바뀜

「내훈」의 고유어가 「어제내훈」에서 다른 고유어로 바뀌어 표현된 유형인데 해당 어휘는 86개이다. 품사별로는 명사 26개, 대명사 1개, 동사 26개, 형용사 10개, 관형사 2개, 부사 15개, 조사 6개로 분류된다. 번역 어휘가 바뀔 때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¹⁰⁾

그리고 고유어로 바뀐 조사를 제외한 자립어 어휘 81개 중에서 77개가 15세기 다른 문헌 자료들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내훈」에만 용례가 보이는 것도 3개가 있다.¹¹⁾

8) 어휘가 바뀌면서 품사가 달라지는 예가 3개 있음.

9) 출전 약호는 「李朝語辭典」(유창돈 1987)을 따랐음(참조 바람). 그리고 어휘 용례의 출전 확인은 同書와 「우리말 큰사전 4(옛말과 이두)」(한글학회편 1992)에 의거했음.

10) 굵다→빋나다, 없다→죽다

11) 샷뻔르다, 조닐이, 쫓드되다.

2.1.1. 명사

- 1) 가히(1:35a)→ 개(1:31b)

曲70(1447)	字會上: 19(1527)
-----------	---------------

 →

번小9:110(1517)

- 2) 거우루(서:8b)→ 거울(8a)

월1:70(1459)	석천30(1583)
-------------	------------

 →

두중3:39(1632)

- 3) 겨집(서:6a)→ 녀즈(서:5b)

석19:14(1447)	유합7: 17(1583)
--------------	---------------

 →

오륜3:36(1797)

- 4) 겨집(1:50b)→ 안해(1:45b)

석19:14(1447)	유합7:17(1583)
--------------	--------------

 →

소언6:116(1586)

- 5) 꽃갈(서:6b)→ 갓(서:5b)

두초7:21(1703)	두중3:47(1632)
--------------	--------------

 →

소언6:166(1586)

- 6) 그우실(1:29b)→ 벼슬(1:27a)

원上1:111(1465)	
---------------	--

 →

용 85(1447)

- 7) 글월(서:5b)→ 글(서:5b)

월序: 11(1447)	두중1: 57(1632)
--------------	---------------

 →

훈언(1446)

- 8) 남진(서:3b)→ 지아비(서:3a)

석19:14(1447)	송강2(1747)
--------------	-----------

 →

박중中:17(1677)

- 9) 남진(1:4a)→ 스나희(1:3b)

석19:14(1447)	송강2(1747)
--------------	-----------

 →

두초上: 21(1481)

- 10) 남(서:6b)→ 전남이(서:5b)

훈언(1446)	역下(1690)
----------	----------

 →

은중 10(1553)

- 11) 녀(1:23b)→ 편(1:21b)

석6: 14(1447)	남명下(1482)
--------------	-----------

 →

능1: 72(1462)

- 12) 뉘(1:78a)→ 더(1:70a)

용 86(1447)	고산6(哲宗代)
------------	----------

 →

석11: 10(1447)

- 13) 더(1:2a)→ 곳(1:2a)

석19: 14(1447)	능1: 84(1462)
---------------	--------------

 →

두중3: 9(1632)

- 14) 다름(1:7a)→ 싸흠(1:6b)

노계(철종)	
--------	--

 →

석13: 9(1447)

- 15) 띠→ 허물(1:10b)

석6: 27(1447)	석천30(1583)
--------------	------------

 →

용119(1447)

- 16) 사랑(1:6b)→ 싱가(1:6a)

용78(1447)	두초8: 24(1481)
-----------	---------------

 →

능7: 46(1462)

- 17) 즈순(1:9b)→ 뼈(1:8b)

월23: 94(1459)	구간6(1489)
---------------	-----------

 →

월2: 12(1459)

- 18) 시름(1:19a)→ 근심(1:17a)

용 102(1447)	남명上(1482)
-------------	-----------

 →

박초上: 47(16C초)

- 19) 아바남(서:7b)→ 아비(서:6b)

곡 23(1447)	월10: 2(1459)
------------	--------------

 →

석13: 187(1447)

- 20) 울히(1:34a)→ 다락이(1:31b)

두초7:9(1481)	동문下(1748)
-------------	-----------

 →

자회上:15(1527)

- 21) 이바다(1:62a)→잔취(1:55a) 용95(1447) 자취下:10(1527) → 변소10: 32(1517)
- 22) 잎(1:5a)→ 지계(1:5a) 용 7(1447) 금삼2: 54(1482) → 석천 21(1583)
- 23) 적(1:41a)→ 제(1:37a) 석6: 11(1447) 월10: 28(1459) → 용 18(1447)
- 24) 향을어미(서:7b)→ 흙어미(서:7a) 두초15: 22(1481) → 변소7: 34(1517)
- 25) 흙무적(1:54b)→ 흙덩이(1:49b) 범화2:119(1463) 자취下:13(1527) → 소연5: 52(1586)
- 26) 할암(1:2a)¹²⁾→ 꾸지람(1:2a)¹³⁾ 능8: 6(1462) 금삼4(1482) → 월17: 84(1632)

2.1.2. 대명사

- 27) 제(서:6a)→ 스스로(서:5b) 구간6: 20(1489) → 두초7: 9(1481)

2.1.3. 동사

- 28) ㄹ장하다(致/1:41a)→ 날위다(1:37a) 능8:6(1462) 금삼4(1482) → 노上:34(1670)
- 29) 곱다(1:13a)→ 빛나다(1:11b) 곡120(1447) 두초7:9(1481) → 석13:19(1447)
- 30) 그릇하다(1:39b)→ 어귀우다(1:35b) 석19:17(1447) → 월10: 2(1459)
- 31) 녀다(1:35a)→ 건다(1:32b) 석19:17(1447) 두중2: 64(1632) → 월8: 94(1459)
- 32) 니기다(서:6a)→ 맞드리다(서:5b) 월18:15(1459) 두초16: 64(1481) → 월13: 4(1459)
- 33) 니르완다(1:1b)→ 니르혀다(1:1b) 석6:19(1447) 금삼3:2(1482) → 소연6: 48(1586)
- 34) 돛다(1:34a)→ 스랑하다(1:30b) 용93(1447) 두초9:11(1481) → 석6: 3(1447)
- 35) 외호다(1:66b)→ 합하다(1:60a) 석9: 12(1447) 두초8: 20(1481) →
- 36) 배다(1:1b)→ 업티다(1:1b) 용90(1447) 송강(1747) → 두초24:6118(1481)

12) '할암'은 다른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동사 '할아다'의 출전을 밝혔음.
 13) '꾸지람' <월17: 84>(1459), '꾸지람' <두중1: 48>(1632)

- 37) 배다(裵/1:29a)→ 잃다(1:26a) 용90(1447) 송강(1747) → 용118(1447)
- 38) 버히다(1:3a)→ 굿다(1:3a) 월1:43(1459) 동문上:46(1748) → 월9:35(1459)
- 39) 불다(서:5b)→ 돌리다(서:5a) 석9: 37(1447) 소연6: 58(1586) → 소연6: 91(1586)
- 40) 뜬디다(胎/1:52b)¹⁴⁾→ 기티다(1:47a) 용116(1447) → 능1:18(1462)
- 41) 샛빠르다(1:3a)→ 쉼시다(1:3a) → 소연3: 23(1586)
- 42) 찌디다(1:34a)→ 빠디다(1:30b) 용37(1447) 삼강 忠: 33(1481) → 석9: 37(1447)
- 43) 시들다(1:63a)→ 여위다(1:57a) 석9: 29(1447) 남명下: 8(1482) → 월1: 26(1459)
- 44) 아철브다(1:13a)→솔히여호다(1:12a) 원下9:29(1465) 금삼4:18(1482) → 원下9:90(1465)
- 45) 앓다(서: 5b)→ 그치다(서: 5b) 석9: 85(1447) 석천12(1583) → 용116(1447)
- 46) 없다(沒/1:51a)→ 죽다(1:46a) 용20(1447) 유합下(1576) → 용22(1459)
- 47) 이바디호다(1:47b)→ 잔척호다(1:43a) 두초20: 3(1481) 석천36(1583) →
- 48) 시름호다(1:35a) → 근심호다(1:32b) 석6: 27(1447) 두초7: 4(1481) → 소연5: 80(1586)
- 49) 저습다(1:10a)→ 절호다(1:9a) 석9:32(1447) 법화6:98(1748) → 월7:3(1459)
- 50) 조심호다(1:44a)→ 삼가다(1:39b) 월2:3(1459) 능1: 22(1462) → 월21: 168(1459)
- 51) 짓다(1:1b)→ 밋다(1:1b) 석6: 23(1447) 노下: 29(1670) → 석9: 26(1447)
- 52) 피다(1:43b)→ 베프다(1:39a) 원각下2: 42(1465) 금삼3: 57(1482) → 두초8: 54(1583)
- 53) 할아다(1:11a)→ 헛브리다(1:10b) 능엄8: 6(1462) 금삼4: 39(1482) → 석천26(1583)
- 54) 혼다(1:3a)→ 헤젓다(1:3a) 능8: 97(1462) 변소8: 27(1517) → 소연3: 23(1586)

14) '뜬디다'의 용례는 「용비어천가」와 「내훈」 외의 다른 문헌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뜬딛다'는 「한중록」(p.136/1795)에 보인다.

2.1.4. 형용사

- 55) 몹다(서: 6b)→ 너르다(서: 5a) 석9: 4(1447) 석천3(1583) → 능2: 7(1462)
- 56) 하다(서: 7b)→ 많다(서: 6a) 용13(1447) 두초15: 31(1481) → 월10: 23(1459)
- 57) 도흐다(1:13a)→ 곱다(1:11b) 두초21: 22(1481) 삼강忠:11(1481) → 석6: 13(1447)
- 58) 도흐다(1:19b)→ 어덜다(1:18a) 두초21: 22(1481) → 석11: 27(1447)
- 59) 모덜다(1:29b)→ 사오납다(1:28a) 용103(1447) 소연5: 106(1586) → 석19: 10(1447)
- 60) 브립다(痒/1:45a)¹⁵⁾→ ㄱ렵다(1:39b)¹⁶⁾ → 경민신36(1656)
- 61) 어덜다(서: 5b)→ 용흐다(서: 5a) 석11:32(1447) 소연5:27(1586) → 역上:27(1690)
- 62) 어즐흐다(1:29a)→ 아득흐다(1:26b) 석6: 3(1447) 동문下: 37(1748) → 석천26(1583)
- 63) 조흐다(1:13b)→ 조출하다(1:12a) 석9: 18(1447) 능업1:32(1462) → 두초15:40(1481)
- 64) 흰흐다(1:15b)→ 흰출흐다(1:14a) 월2: 26(1459) 두초15: 29(1481) → 두초7: 19(1481)

2.1.5. 관형사

- 65) 여러(서:6a)→ 모든(서:5b) 석6: 28(1447) 금삼2: 2(1482) → 소연1: 3(1481)
- 66) 윈(1:8a)→ 네(1:7b) 풍유上: 3(1768) 역보3(1775) → 용51(1447)

2.1.6. 부사

- 67) 가시야(1:52b)→ 다시(1:47b) 목44(1466) 남명下:72(1482) → 용77(1447)
- 68) 곧(輒/1:55a)→ 문득(1:50a) 용120(1447) 유합 下(1576) → 월序: 3(1459)
- 69) 느의(1:26a)→ 다시(1:23b) 월1: 31(1459) 법화5: 22(1775) → 용77(1447)

15) <구방下:3(1466), 두초上:13(1481), 구간1:92(1498)>에서는 “브립다(痒)”의 표기형이 보인다.

16) <역上:48(1690), 동문下: 7(1748)>에서는 “ㄱ렵다”의 표기형이 쓰임.

- 70) 다뭇(1:69b)→ 더브러(1:62b)

두초8: 2(1481)	박중44(1677)
--------------	------------

 →

금삼2: 15(1482)

- 71) 뭇(1:29a)→ 더옥(1:26a)

훈언(1446)	두초上: 4(1481)
----------	--------------

 →

소언6: 22(1586)

- 72) 모로매(1:9a)→ 반드시(1:8a)

석6: 2(1447)	법화1: 240(1463)
-------------	----------------

 →

두초24: 32(1481)

- 73) 드던히(1:73a)→ 가뵤야이(1:66a)

법화5: 48(1463)	원上2(1465)
---------------	-----------

 →

능3:116(1462)

- 74) 비록(1:29b)→ 혼갓(1:27a)

훈언(1446)	금삼2:4(1482)
----------	-------------

 →

석13: 39(1447)

- 75) 시러(1:33b)→ 시러곰(1:30a)

훈언(1446)	여사1:18(1736)
----------	--------------

 →

두초7:7(1481)

- 76) 또(1:5b)→ 또흔(1:5a)

용9(1447)	유합下: 30(1576)
----------	---------------

 →

오륜1:2(1779)

- 77) 아래(1:28b)→ 일즉(1:26a)

용76(1447)	곡(11447)
-----------	----------

 →

두초25: 11(1481)

- 78) 어느(서:6a)→ 엇디(서:5b)

용47(1447)	두초20:32(1481)
-----------	---------------

 →

두초15:47(1481)

- 79) 이대(1:50b)→ 잘(1:45b)

석9: 3(1447)	노上: 16(1670)
-------------	--------------

 →

석6:30(1447)

- 80) 즉자히(1:10a)→ 즉시(1:9a)

석6: 7(1447)	삼강1: 4(1481)
-------------	--------------

 →

번소8:38(1517)

- 81) 흥마(1:58b)→ 임의(1:52b)

용42(1447)	구간1: 35(1489)
-----------	---------------

 →

유합上30(1576)

2.1.7. 조사¹⁷⁾

- 82) 애(서: 5b)→ 이(서: 5a)
 83) 이(1: 13b)→ 의(1: 16a)
 84) 이(1: 22a)→ 을(1: 18a)
 85) 을(1: 61b)→ 으로(1: 50a)
 86) 을(1: 86a)→ 로뻬(1: 69b)
 87) 으로(서: 4a)→ 을(서: 3b)

2.2. 한자어에서 고유어로의 바뀜

17) 격조사의 바뀜이며, 통시적 어휘 변화와는 무관하므로 출전과 연대는 생략함.

「내훈」의 한자어¹⁸⁾가 「어제내훈」에서 고유어로 바뀌어 표현된 유형인데, 문맥 의미를 보다 쉽게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된다. 해당 어휘는 8개인데 품사별로는 명사 5개, 동사 1개, 형용사 2개로 분류된다.

2.2.1. 명사

- 1) 분별(1:29a) → 근심(1:26a)

석9:27(1447)

 남명下1: 27(1482) →

두초상:47(1481)

- 2) 沙鉢(1:3a) → 그릇(1:3a)

금삼2: 41(1482)

 유합上: 27(1576) →

꼭4(1447)

- 3) 상(上/1:49a) → 옷듬(1:44b)

--	--

 →

석9: 18(1447)

- 4) 榮籠(서:3b) → 고임(서:3a)¹⁹⁾

--	--

 →

--
- 5) 양즈(1:12b) → 얼굴(1:11b)

석6: 1(1447)

 자회下1:26(1481) →

석9:17(1447)

2.2.2. 동사

- 6) 진상하다(1:70b) → 올리다(1:63b)

--	--

 →

--

2.2.3. 형용사

- 7) 선하다(1:21a) → 어덜다(1:19a)

--	--

 →

석13: 4(1447)

- 8) 유여하다(1:15b) → 넉넉하(1:14a)

번소8: 31(1517)

--

 →

소연6: 24(1586)

2.3. 고유어에서 한자어로의 바뀜

「내훈」의 고유어가 「어제내훈」에서는 한자어로 바뀌어 표현된 유형이며 해당 어휘는 28개이다. 품사별로는 명사 5개, 동사 16개, 형용사 1개, 부사 6개

18) 한자어는 ‘한자어+고유어 접미사’의 결합구조를 지닌 단어까지 포함한다.

19) 괴다(愛)에 파생된 명사 ‘굉’의 오기(誤記)로 생각되는데,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괴홍’<어소5: 20>(1744)은 나타난다.

로 분류된다. 한자어로 바뀐 어휘는 「어제내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많은데 당시 국어에서 한자어 사용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2.3.1. 명사

- 1) 거유(1:34b)→ 곡(鷓/1:31a)

구방上: 53(1446)	동문下: 34(1748)
---------------	---------------

 →
- 2) 글월(1:70b)→ 疏(1:63b)

월서: 11(1459)	두중1: 57(1632)
--------------	---------------

 →
- 3) 노릇(1:2a)→ 회룡(1:2a)

용44(1447)	자회下15(1527)
-----------	-------------

 →

번호8: 24 (1517)

- 4) 바물(서:6b)→ 海(서:6a)

용18(1447)	두초20:53 (1481)
-----------	----------------

 →
- 5) 이(1:63a)→ 者(1:57a)

용13(1447)	월211: 46(1459)
-----------	----------------

 →

2.3.2. 동사

- 6) 거슬쁘다(1:77b)→ 반역하다(1:70a)

번호8: 11(1517)	두중5: 20(1632)
---------------	---------------

 →
- 7) 고마하다(1: 37b)→ 존대하다(1: 34a)

석6: 12(1447)	번호9: 42(1517)
--------------	---------------

 →
- 8) 굶다(1: 77a)→ 굶복하다(1: 69a)

능1: 50(1462)	유합下: 5(1516)
--------------	--------------

 →

소연2: 53(1586)

- 9) 구짚다(1: 59b)→ 질정하다(1: 53b)

석19: 26(1447)	자회下: 15(1527)
---------------	---------------

 →
- 10) 노노하하다(1: 6b)→ 방종하다(1: 6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

소연2: 34(1586)

- 11) 마리오다(質/1: 8b)→ 질정하다(1: 7b)

능1: 16(1462)	법화1: 10(1463)
--------------	---------------

 →
- 12) 맛꿩다(1: 44b)→ 웅하다(1: 40a)

월9: 10(1459)	금삼5: 4(1482)
--------------	--------------

 →

삼역6: 17(1703)

- 13) 본받다(1: 34a)→ 교축하다(1: 30b)

월86: 24(1459)	두초20: 4(1481)
---------------	---------------

 →
- 14) 석석하다(1: 41b)→ 엄숙하다(1: 37b)20

석6: 35(1447)	소연5: 8(1586)
--------------	--------------

 →

20) 부사 '엄숙히'(소연3: 12/1586)의 용례는 보인다.

- 15) 애와티다(서: 6a)→ 恨하다(서: 5b) 월2: 76(1447) 두초20: 18(1481) →
- 16) 일이다(1: 74a)→ 혼인하다(1: 66b)²¹⁾ 곡149(1447) 자회上: 17(1527) →
- 17) 여회다(1:1b)→ 이간하다(1:1b) 용91(1447) 석천16(1583) →
- 18) 조심하다(1:44a)→ 경계하다(1:39b) 월1: 6(1459) 유합下: 32(1576) → 번소8: 11(1517)
- 19) 조스르외다(서:7b)→ 요결하다(서:7a) 농업1: 22(1462) 두초23: 16(1481) →
- 20) 좃드되다(1: 8b)→ 인순하다(1: 7b/因循) →
- 21) 즐기다(1: 29b)→ 승상하다(1: 27a) 용92(1447) 석천33(1583) →

2.3.3. 형용사

- 22) 도탑다(1: 34a)→ 돈독하다(1: 30b) 석천13(1583) 소연6: 5(1586) → 소연5: 11(1586)

2.3.4. 부사

- 23) 시혹(1:43b)→ 혹(1:39a) 석9: 16(1447) 금삼2: 16(1481) → 월18: 32(1459)
- 24) 어루(1:33b)→ 可히(1:30a) 석6: 11(1447) 야운41(1577) → 속삼22(1514)
- 25) 즈올아이(1: 38a)→ 친히(1: 33b) 두초10:46(1481) → 번소10: 17(1517)
- 26) 값간도(1: 43a)→ 감히(1: 44b) 석13: 53(1447) 두초7: 1(1481) → 두중上: 34(1632)
- 27) 조널이(1: 45b)→ 敵히(1: 40b) → 두중上: 34(1632)
- 28) 저그나(1:29a)→ 진실로(1:26a) 월2:5(1459) 송강1:23(1747) → 두초7:29(1481)

21) 명사 '혼인'의 용례는 "번역소학(7: 6/1517)"에 나타난다.

2.4. 한자어에서 한자어로의 바뀜

「내훈」의 한자어가 「어제내훈」에서도 한자어로 바뀌어 표현된 유형인데 해당 어휘는 8개이다. 품사별로는 명사 4개, 동사 3개, 형용사 1개로 분석된다. '과하다→스모하다'처럼 품사가 바뀌는 예도 보인다.

2.4.1. 명사

- 1) 卷數(서:7b)→ 卷帙(서:6a) →
- 2) 대답(1:2a)→ 응답(1:2a) →
- 3) 錢糧(1: 71a)²²⁾→ 資糧(1: 64a) 석6: 15(1447) 자회下: 9(1527) → 유합下: 35(1576)
- 4) 횡덕(1: 33b)→ 횡실(1: 30b) 석6: 2(1447) 자회, 범례: 4(1527) → 번소8: 17(1517)

2.4.2. 동사

- 5) 과하다(1: 73a)→ 스모하다(1: 66a)²³⁾ 용7(1447) 송강15(1747) →
- 6) 음악하다(1: 62b)²⁴⁾→ 풍뉴하다(1: 56b)²⁵⁾ →
- 7) 勸하다(1: 31a)→ 경계하다(1: 28a) → 번소8: 11(1517)

2.4.3. 형용사

- 8) 걱정하다(1: 2a)→ 한가하다(1: 2a) → 소언2: 62(1586)

22) '錢'은 '錢', '糧'은 '糧'의 의미로 생각됨. “錢錢(박번上:19/1547?, 노번下:46/1547?), 糧糧(자회中:20/1527)에 의거함.

23) 명사 '스모'가 “유합下: 11(/1576)”에 나타남.

24) 명사 '음악'이 “자회下: 7(1527)”에 나타남.

25) 명사 '풍뉴'가 “두초上: 6(1481)”에 나타남.

3. 어휘 교체의 원인

「내훈」의 어휘가 「어제내훈」에서 바뀐 경우 그 원인은 의미적인 것과 통사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문맥 의미 쉽게하기, 문맥 의미 바로 잡기, 문맥 의미 구체화하기'의 3가지로 구분된다.

후자는 조사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통사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서술어의 통사적 기능이 바뀌거나, 이중주어 구문인 경우에 격조사가 교체되었다. 부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를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 구조로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1. 문맥 의미 쉽게 하기

문맥 의미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휘를 교체한 것으로 여겨진다.

1)의 “디”는 ‘장소, 처지, 일, 것’ 등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장소의 뜻인 ‘곳’이 17세기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어세가 넓어졌다. 2)의 “배다”는 ‘喪’의 뜻으로, 그리고 “잃다”는 ‘失’의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교체된 어휘가 문맥 의미를 더 쉽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3)의 경우도 “勅하다”보다는 “경계하다”가 문맥 의미를 쉽게 해준다고 하겠다.

1) 디(1:2a)→ 곳(1:2a)

① 寂靜한 디(1:2a) ② 한가한 곳(1:2a)

2) 배다(1:29a)→ 잃다(1:26a)

① 지불 배는 그 허므리 못 크니다 (1:29a)

② 집을 일홈이 그 허믈이 더욱 크니다(1:26a)

3) 勅하다(1: 31a)→ 경계하다(1: 28a)

① 漢昭烈이 장춍 업스실제 後主를 勅하야(1: 31a)

② 漢昭烈이 장춍 업스실제 後主를 경계하야(1: 28a)

3.2. 문맥 의미 바로 잡기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어휘를 교체하여 문맥의 전체 의미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의 “여회다”는 ‘이별하다’의 뜻이므로 ‘홀어지다’의 뜻인 “이간하다”로 교체되었으며, 2)의 “울히”는 ‘鶴’의 뜻이므로 ‘驚’의 뜻인 “다악이”로 교체된 것으로 여겨진다. 3)의 “進上하다”는 [+토산물]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올리다”로 교체되었으며, 4)의 “저그나”도 “진실로”가 문맥 의미에 맞기 때문에 교체된 것으로 생각된다.

1) 여회다(1:1b)→ 이간하다(1:1b)

① 六親을 여회에 하느니(1:1b)

② 六親을 이간케 하느니(1:1b)

2) 울히(1:34a)→ 다악이(1:31b)

① 오히려 울히 굶다 호미라(1:34a)

② 오히려 다악이(집오리) 又호려니와(驚, 집오리/1:31b)

3) 진상하다(1: 70b)→ 올리다(1: 63b)

① 글월을 進上하수와(1: 70b) ② 疏를 올려(1: 63b)

4) 저그나(1:29a)→ 진실로(1:26a)

① 저그나 제 모매 利하거든(1:29a) ② 진실로 제 몸에 利하거든(1:26a)

3.3. 문맥 의미 구체화하기

문맥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교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휘가 쓰인 다음의 본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1) 과하다(1: 73a)→ 스모하다(1: 66a)

① 부귀를 과하야 취하면(1: 73a) ② 부귀를 스모하야 취하면(1: 66a)

2) 없다(1:51a)→ 죽다(1:46a)

① 석아비 업스면(1:51a) ② 석아비 주그면(1:46a)

3) 뉘다(서: 6b)→ 너르다(서: 5a)

① 므수물 뉘곤디 노니며(서: 6b) ② 므옴을 너르디 노로며(서: 5a)

4) 윈(1:8a)→ 네(1:7b)

① 윈 이틀 니르디 말며(1:8a) ② 네 일을 니르디 아니호며(1:7b)

3.4. 통사 구조의 차이

문장 구조가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 경우 자연스럽게 바꾸려는 의도에서 일부 조사의 격이 바뀌었다. 즉 통사 구조의 차이가 격조사를 교체하게 한 것이다.

1)은 '처격'에서 '주격'으로 바뀌었는데 서술어의 교체와 관계된다.

2)는 '주격'에서 '관형격'으로 바뀌었는데 이중주어 구문일 때 의미 파악이 더 어렵기 때문에 교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겨집+이”로서 주제문의 주제어 기능보다는 “겨집+의”로서 수식어(관형어) 기능일 경우가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3)은 '주격'에서 '목적격'으로 바뀌었는데 서술어가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4)는 '주격'에서 '기구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서술어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여금”이 “~로, ~으로”와 결합하여 구로 쓰이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5)는 '목적격'에서 '기구격'으로, 6)은 '기구격'에서 '목적격'으로 바뀌었는데 역시 서술어의 변화와 관계되는 것이다.

1) 애(서: 5b)→ 이(서: 5a)

① 므수매 서늘히 너기디 아니호 아니 호노라(서: 5b)

② 므옴이 서늘호디 아니티 아니 하노라(서: 5a)

- 2) 이(1: 13b)→ 의(1: 10a)
 - ① 겨지비 네 힘더기 잇느니(1: 13b)
 - ② 겨집의 네 가지 힘실이 잇느니(1: 10a)
- 3) 이(1: 22a)→ 을(1: 18a)
 - ① 그 모미 주저도 아디 못호미 굴하니(1: 22a)
 - ② 그 몸을 죽여도 짜드롭이 업슴ㄴ튼니(1: 18a)
- 4) 을(1: 61b)→ 으로(1: 50a)
 - ① 겨집 종을 하야 藥을 부비더니(1: 61b)
 - ② 겨집 종으로 하여곰 藥을 비비이더니(1: 50a)
- 5) 을(1: 86a)→ 로빠(1: 69b)
 - ① 바미 너더 브를 써 흘디니(1: 86a)
 - ② 밤의 든닐 지 블로빠 흘디니(1: 69b)
- 6) 으로(서: 4a)→ 을(서: 3b)
 - ① 다시 구리기들 덩ㄴ라 곱으로 불라(서: 4a)
 - ② 다시 구리기등을 덩ㄴ라 기름을 보랏고(서: 3b)

4. 어휘의 의미 관계

어휘는 특정한 어휘장 속에 놓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어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의미를 중심으로 서로 연관을 맺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김광해 1993).

2장에 제시한 어휘 목록을 보면 어휘가 교체되면서 의미적 상관관계를 형성할 때 소수의 어휘만 ‘동음 관계’를 형성하고 대부분 ‘유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은 중간본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유의 관계’ 형성에서 의미의 거리가 먼 ‘유의 관계’도 보인다. 이러한 의미 관계들은 문맥 의미를 바로 잡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 바뀐 경우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4.1. 동음 관계

- 1) 거집(1: 50b) : ① 녀즈(서: 5b)
 ② 안해(1: 45b)
- 2) 남진(서: 3b) : ① 지아비(서: 3a)
 ② 스나히(1: 3b)
- 3) 도흐다(1: 1b) : ① 곱다(1: 11b)
 ② 어덜다(1: 18a)
- 4) 배다(1: 13a) : ① 업티다(1: 1b)
 ② 잃다(1: 26a)

4.2. 유의 관계

다음 1)~8)의 어휘들은 문맥 의미 바로잡기 혹은 문맥 의미 구체화하기를 위해 의미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의미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유의 관계가 아닌 비교적 의미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 1) 여회다(1:1b) : 이간하다(1:1b)
- 2) 곱다(1:13a) : 빛나다(1:11b)
 ① (1: 13a) ② (1: 11b)
- 3) 과하다(1: 73a) : 스모하다(1: 66a)
 ① 부귀를 과하야 취하면(1: 73a) ② 부귀를 스모하야 취하면(1: 66a)
- 4) 몹다(서: 6b) : 너르다(서: 5a)
 ① 막수물 물근디 노니며(서: 6b) ② 막음을 너른디 노로며(서: 5a)
- 5) 없다(1: 51a) : 죽다(1: 46a)
 ① 석아비 업스면(1:51a) ② 석아비 주그면(1:46a)
- 6) 값간도(1: 43a) : 감히(1: 44b)
 ① 부귀를 과하야 취하면(1: 73a) ② 부귀를 스모하야 취하면(1: 66a)
- 7) 저그나(1: 29a) : 진실로(1: 26a)
 ① 저그나 제 모매利害거든(1: 29a) ② 진실로 제 몸에利害거든(1: 26a)

- 8) 즐기다(1: 29b) : 숭상하다(1: 27a)
 - ① 오직 노력껏 말하요물 즐기고(1: 29b)
 - ② 속절업시 노름을 숭상하야(1: 27a)

5. 어휘의 변화

15세기나 16세기 전반에 쓰이던 많은 어휘들이 16세기 말부터는 정리되어 17세기부터 소위 고전 유형에서 벗어나 근대어의 유형을 이루게 되었으며(유창돈 1972), 해당 시기의 문헌 자료에도 반영된 것이다.

「어제내훈」은 「내훈」의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별개 시기의 판본으로 인정 받기 때문에 근대어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어휘 변화에 대해 고유어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²⁶⁾ 해당 어휘가 맨처음 쓰인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 의한 통시적 관계의 고찰이 되겠다.

「어제내훈」에서 근대어로 교체됨으로써 어휘 변화가 일어난 7개의 고유어를 출전 연도별로 제시하면 아래 1) ~6)과 같다.²⁷⁾ 바뀐 고유어 95개 중에서 0.073%의 어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변화의 이유는 ‘형태 변화, 의미 분화, 사멸, 어의 전성’ 등에 의해서이다.

- 1) 거울<두중3: 39>(1632) ← 거우루
- 2) 곳<두중3: 9>(1632) ← 디
- 3) 날위다<노상: 34>(1670) ← ㄱ장하다
- 4) 지아비<박중中: 17>(1677) ← 남진
- 5) 용하다<역상27>(1690) ← 어덜다
- 6) 녀즈<어내1: 43a>(1736) ← 겨집

26) 3권 중 1권의 바뀐 어휘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휘 변화의 모습이 되겠다.

27) 3권 중 1권의 바뀐 어휘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휘의 변화의 전체 모습은 아님.

6. 결론

중세국어 문헌 자료인 「내훈」과 근대국어 문헌 자료인 「어제내훈」의 어휘 체계와 의미,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첫째, 「어제내훈」에서 바뀐 130개의 어휘를 어종과 품사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어 종		품 사							소계	합계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고유어	고유어→고유어	26	1	26	10	2	15	6	86	94
	한자어→고유어	5		1	2				8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5		16	1		6		28	36
	한자어→한자어	4		3	1				8	

둘째, 고유어에서 한자어로 바뀐 어휘는 28개,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바뀐 어휘는 7개로서 한자어가 훨씬 많았다. 이것은 당시의 한자어 사용의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어휘가 바뀌면서 품사도 바뀐 예가 소수 나타났는데 이것은 문맥 의미 및 통사 구조와 관계가 있다.

넷째, 체언, 용언, 수식언의 경우 어휘 교체의 원인은 ‘문맥 의미 쉽게하기’, ‘문맥 의미 바로잡기’, ‘문맥 의미 구체화하기’로 정리된다.

다섯째, 격조사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통사 구조와 관계된다. 즉 문장 구조상 더 자연스럽게 바꾸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어휘가 교체되면서 의미적 상관관계를 형성할 때 대부분 ‘유의 관계’를 형성하고 소수만 ‘동음 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미적 거리가 비교적 먼 ‘유의 관계’ 형성도 있었다.

일곱째, 「어제내훈」에서 근대어로의 어휘 변화가 일어난 고유어는 6개로

나타났다. 이것은 간행 당시의 현실 언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출전 약호 *

경민신(경민편/1658)	곡(월인천강지곡/1447)	구간(구급간이방/1489)
금삼(금강경삼가해/1482)	남명(남명집언해/1482)	노(노걸대언해/1670)
노계(노계집/철종)	능(능엄경언해/1462)	동문(동문유해/1748)
두중(두시언해중간본/1632)	두초(두시언해초간본/1481)	박초(박통사언해초간본/16C초)
번소(번역소학/1517)	법화(법화경언해/1463)	삼강(삼강행실도/1481)
석(석보상절/1447)	석천(석봉천자문/1583)	송강(송강가사/1747)
여사(여사서/1736)	역(역어유해/1690)	오륜(오륜행실도/1797)
용(용비어천가/1447)	원(원각경언해/1465)	월(월인석보/1459)
은중(은중경언해/1553)	유합(유합/1576)	자회(훈몽자회/1527)
훈언(훈민정음언해/1446)		

참 고 문 헌

강복수. 1972. 「국어문법사 연구」, 형설출판사.
 고영근. 1988.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박충구. 1980. 16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학 43.
 권선화. 1992. 「내훈과 어제내훈의 비교연구」, 동덕여대 석사논문.
 김광해. 1993. 한국어 어휘체계의 특징, 국어교육 1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_____. 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승곤. 1966. 15세기 조사연구, 문호 1, 건국대.
 _____. 1974. 16세기 국어의 조사연구, 학술지 18, 건국대.
 김종택. 1992.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김종훈. 1983. 「한국 고유한자 연구」, 집문당.
 성환갑. 1987. 고유어의 한자어화 과정, 국어생활 8호.
 심재기. 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안병희·이광호. 1990. 「중세국어 문법론」, 학연사.

- 유창돈(1973).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 _____. 1990. 「이조어사전」, 연세대학출판부.
- 이경옥. 1996. 「내훈 이해의 문법적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 이기문. 197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_____. 1993.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승욱. 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 이희숙. 1989. 「내훈과 어제내훈의 음운 및 표기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 전광현. 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19, 서울대.
- 전상범. 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정연찬. 1981. 근대국어 음운론의 몇 가지 문제, 동양학 19.
- 정원수. 1992. 「국어의 단어 형성론」, 한신문화사.
- 조윤호. 1987. 「내훈과 어제내훈의 비교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조항범. 1989. 국어 어휘론 연구사, 국어학 19.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윤표. 1969. 15세기 국어의 격연구, 국어연구 21.
- _____. 1990. 어제내훈 해제, 영인본 어제내훈, 홍문관.
- _____. 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한글학회 편. 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500-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 syblee@mail.chosun.ac.kr